

韩中 역사 음악 속으로 '知音' 음악회 연다

히어로역사연구회, 클래식 음악으로 우리 역사 전해
이달 29일 상하이한국문화원서 개최

임정학교 200기를 향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히어로역사연구회가 이번엔 클래식 음악으로 우리 역사를 알린다. 한중 역사 인물들

있고, 두 인물들의 역사 스토리를 클래식 음악으로 연주하는 '知音(知音) 음악회'를 연다.

오는 29일 오후 2시 상하이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는 독립운동가 장강 김택영 선생의 증손 김계생 피아니스트(산동예술대 음악대학 교수), 김택영 선생의 증손부 탕단화 바이올리니스트가 참여해 한중 역사를 잇는 이번 음악회의 의미를 더한다. 독립운동가 후손 외에 중국측 연주자로 바이올린 리찬샤이(李泉帅), 피아노 후리한(胡礼涵), 클라리넷 손준난(孙俊楠) 등으로 구성된 '상하이 Bar Line 앙상블'이 함께 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백인태와 유슬기 '듀에토', 메조소프라노 김은혜, 소프라노 이하영, 테너 유정우가 참여해 멋진 무대를 선사한다.

이번知音 음악회는 ▲손문과 신규식 '꿈과 꿈이 만나다' ▲장건과 김택영의 만남 '실업보국과 문장보국' ▲윤봉길과 흥커우 의거 중국인 조력자들 ▲저보성과 김구 '한중 우호의 현장에서' 음수 사원을 생각하다 ▲태항산의 전사들 ▲바진과 유자명 등 한중 공통된 역사와 인물들의 인연을 클래식 연주로 전달하는 상하이 가을 특별한 음악회가 될 예정이다.
知音 음악회를 기획한 김지우



이동한 전 민주평통 상하이협의회장 별세



이동한(59) 전 민주평통 상하이협의회장이 지난 13일 별세했다.

민주평통 18~20기 상하이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고인은 상하이지역 민주평통 발전과 해외 평화통일 기반 조성의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고인은 또한 재외동포 청년과 미래세대의 통일역량을 결집하고, 2013년부터 매년 청소년 통일축제 등을 개최해 왔으며, 평화통일 공감 확산을 위한 다양한 통일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해외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 밖에도 고인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 활동 △지역사회 활동으로 교민과 학생들을 위한 봉사 후원 △한중 지역교류 활성화 기여 △코로나19 후원 등 중국 내 평화공공 외교 실천과 다양한 나눔 봉사 활동을 해왔다.

고인은 2011년 민주평통 상하이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15~16기 중국 상하이협의회 간사, 17기 중국지역회의 간사, 18~20기 상하이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中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4개 1선 도시 140㎡ 이하 취득세 1%로 일괄 조정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발전을 위한 세금 혜택 등 추가 부양책을 내놓았다. 13일 동방망(东方财富)은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조세 정책 공지(이하 '공지')'에서 부동산 거래 단계의 취득세 혜택을 강화하고 토지 부가가치세(增值税) 최소 원천징수율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지'는 부동산 취득 저세율 혜택의 면적 기준을 현행 90㎡에서 140㎡로 완화하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4개 도시도 다른 지역과 같은 2주택 취득세율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 주택 구매자는 첫 주택, 2주택과 상관없이 주택 면적이 140㎡를 초과하지 않으면 일제히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토지 부가가치세의 경우, 중국 각 지역의 최소 원천징수율을 0.5%p 일괄 인하한다. 단, 각 지방 정부는 현지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원천징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일반주택과 비일반 주택 기준 관련 부가가치세와 토지 부가가치세 우대 정책에 대한 조정책도 내놓았다. 중고 주택 거래 부담을 낮추고 부동산 개발업체의 세금 부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공지'는 일반주택 기준을 폐지하고 개인이 구매한 지 2년이 지

난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일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4개 도시에서 구매 2년 이상의 비일반 주택을 판매하는 개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부가가치세도 일반주택과 비일반 주택 기준을 취소한 도시에서 납세인의 건축 판매 부가가치액이 공제 항목 금액의 20% 미만인 해당하는 일반 기준 주택에 토지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엔위엔진(严跃进) 상하이 이취부동산 연구소 부원장은 "과거에는 90㎡ 이하의 주택에만 취득세율 1%가 적용됐으나 지금은

90~140㎡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첫 주택이거만 하면 1%의 세율이 적용된다"면서 "상하이를 예로 들면, 취득세율이 3%에서 1%까지 낮아져 100만 위안의 집을 사는 경우, 취득세율이 3만 위안에서 1만 위안까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중대형 주택 구매를 직접적으로 촉진하고 개선형 주택 수요를 실질적으로 진작시키며 1선 도시 주택 거래에 호재로 작용해 1선 도시의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고 시장 활성화를 도울 것"이라며 "이는 결국 부동산 개발업체와 주택 소유주의 재고를 처리하는 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大惠建築
INTERIOR DESIGN & ARCHITECTURE

대혜건축
DAEHYE Interior Design Company
瑞惠装饰工程(上海)有限公司
上海市闵行区吴中路1238号5楼G座
TEL : 021-5422-1691(1692)